

La Lanterno Azia

에스페란토 [Oficiala Organo de
Korea Esperanto-Asocio]



La 51a Korea Kongreso de Esperanto
(5~6 oktobro 2019, Baeyeong Element-Lernejo en Jinju)

Nova prez. de KEA

Por la Esperanto-movado
de 2020-aj jaroj

Kongreso

51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
51a Korea Kongreso de Esperanto

Kurso

39회 남강학교 가을학기
39a Namkang Esp.-Lernejo



<http://www.esperanto.or.kr>
사단법인 한국에스페란토협회

La Lanterno Azia

Oficiala organo

de

Korea Esperanto-Asocio

jarkolekto 45 n-ro 361(11/12)

Novembro/Decembro 2019

Jara abonprezo

11,5 eŭroj(aerpoŝte)

편집위원장 : 조명자

편집부장 : 김형근

편집위원 : 박수진 박정숙

장수미

기관지 발행 후원회원(2019년)

김영명 원불교에스페란토회

김우선 김 주 정원조 서진수

- 기사 모집 주소 -

kea@esperanto.or.kr

1975년 9월 15일 창간

Korea Esperanto-Asocio

1601 (Gangbyeon Hansin Core B/D)

18, Mapo-daero 4da-gil, Mapo-gu,

Seulo 04177, Koreio

telefono : +82-2-717-6974

telefakso : +82-2-717-6975

retpoŝto : **kea@esperanto.or.kr**

http://www.esperanto.or.kr/

Landa Asocio

de

Universala Esperanto-Asocio

ekde 1976

UEA-kodo : keas-t

Fondita en 31 julio 1920

Reorganizita en 31 aŭgusto 1975

Prezidanto : SO, Jinsu

Ĝenerala sekretario : KANG Hongu

제 작 : 성문기희

목 차 ENHAVO

3. KEA 회장 취임사 / Por la Esperanto-movado de 2020-aj jaroj / SO Jinsu
4. 100-jara Jubileo de KEA / KEA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현황 / 오순모
5. 51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 / 결국 그 날은 왔고, 새 바람이 불었다 / KANG Byounghun
9. En la 51a Korea Kongreso / 넘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 주중식
12. 39차 남강학교 / La 39a Namkang Esperanto-Lernejo / PARK Yongsung
15. 106차 일본에스페란토대회 / La 106a Japana Esperanto-Kongreso / CHOI Sukhee
18. Libroservo / 새로 들어온 책
19. 심리학 / Kio estas feliĉo? / GIM Inhong
20. Enlande / 국내소식
24. Eksterlande / 국외소식
25. 105a UK / 제105차 세계에스페란토대회
26. Ekzameno / 제109회 에스페란토 실력 검정 시험 (중급) / 허성

앞표지 사진 제공: 신영록 뒤표지 광고 후원: 서진수

사단법인 한국에스페란토협회

1920년 7월 31일 조선에스페란토협회 창립
 1976년 7월 31일 세계에스페란토협회 국가지부 가입
 1986년 12월 13일 사단법인 등록(법인허가증 287호)

명예 회장 : 장충식 정원조 박화중 이증기 이영구
 지도위원 : 김광수 김영명 김용진 김우선 김종태 마영태 박강문 박기완
 박용세 서길수 성준경 신종태 신차식 양옥남 이낙기 이용철
 이일봉 이증세 이학선 이환의 전경덕 조성호 한덕섭

회 장 : 서진수
 부 회 장 : 강병훈 김인홍 오순모 정현주
 (조직) (국제) (총무) (재정)
 이 사 : 김용진 김 주 엄미련 유영애 이남행 이용철 이현숙 장영은
 (사업) (국제) (교육/협숙) (홍보) (KKE) (출판) (청년) (교육)
 정희정 최유식 최정욱 최정철 한숙희
 (조직) (100주년) (홍보) (누리집) (조직)
 비상임이사 : 광종훈 김송아 김시현 박용승 박종영 백수정 오기숙 이선희
 장기수 조만진 최향숙 홍성조

감 사 : 이길성 유필근
 사 무 국 : 사무국장 강현구
 출판영상위원장 : 이용철
 어학위원장 : 허 성
 청 년 회 : 회장 신현규 부회장 오희연(국제) 박상현(국내) 총무 박장호
 홍보대사 : 김유승 김태훈 김 훈 엄홍길 윤무부 채수정 최영태 한병길
 한혜원

UEA 명예고문 : 장충식
 UEA 명예회원 : 서길수
 UEA 이사 : 서진수 (A 이사·UEA 임원), 이증기 (B 이사)
 UEA-ĉefdelegito : 서진수
 UEA 에스페란토 학술원 회원 : 마영태

0417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18 (강변한신코아빌딩)1601호
 전 화 : (02) 717-6974 전 송 : (02) 717-6975
 전자메일 : kea@esperanto.or.kr
 홈페이지 : http://www.esperanto.or.kr/

국민은행 : 031-01-0365-220 [예금주: 한국에스페란토협회]

Por la Esperanto-movado de 2020-aj jaroj

D-ro SO Jinsu / Nova prezidanto de KEA



Estimataj pioniroj konstruintaj la bazŝtonojn de nia movado, karaj nuntempaj estraroj kaj kolegoj, mi esprimas sinceran respekton kaj elkorajn dankojn al vi.

Alfronte 2020-ajn jarojn, 'la erao de artefarita inteligenteco', ni samtempaj homoj estas postulataj por nemalgrandaj ŝanĝoj de la kleriga metodo en lingva lernado kaj la administrado de la asocio. Kaj por nia tasko kaj strategio mi elektas 3 elementojn, "kunlabori, servi, kaj kapabligi."

Kunlabora spirito herediĝas en la sango de ni koreoj kiel bela tradicio, kio naskas multoblajn rezultojn por niaj laboretoj. Ni ja spertis tiojn kaj vidis la rezultojn pere de 2-fojaj Seulaj UKoj, partoprenoj en diversaj esperantaj eventoj en kaj eksterlandoj, kaj eĉ per la ekposedo de la nova oficejo de KEA, kien ni transloĝiĝos en aprilo de 2020.

Serva sistemo de nun adoptiĝu en nia asocio, mi esperas. Por tio mi mem estas preta ion ajn fari, je ajna posteno. Kaj mi petas viajn aktivajn partoprenojn por administri nian asocion per niaj servoj.

Kapabligo de nia lingvo estas plej baza kaj fundamenta postulo por esperantistoj. Por kapabligi la lingvon kaj faciligi uzadon de la plej modernaj teknikaĵoj por lerno kaj komuniko, de nun ni alkitimiĝu kaj praktiku fejsbukon, jutubon, instagramon, skajpon, zumadon kune kun katoko.

Mi esperas, ke nia himno ĉiam sonu tiel impone

kun sama senco kiel nun en la solenaj komenco kaj fino de nia vivo. Atendas nin gravaj eventoj kiel 100-jara Jubileo, 48a Komuna Seminario kaj 10a Azia-Oceania Kongreso. Ni konstruu kune pli altan kaj fortikan turon per mano en mano, kapo ĉe kapo, koro kun koro. Refojan dankon al vi !

- 인공지능시대인 2020년대를 맞아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가 지향할 세 가지 모토로 "첫째 협업, 둘째 봉사, 셋째 언어능력 배양"을 선택하였습니다.

첫째, 협업 정신 (Kunlabora spirito)은 우리 한국인의 핏속에 흐르는 아름다운 정신으로 두 번의 서울 대회와 최근에 참가하고 있는 다양한 국내외 에스페란토 행사, 그리고 내년 4월에 옮겨갈 새집의 구입 과정에서 잘 보았습니다.

둘째, 봉사로 운영되는 협회 (Serva sistemo)를 만들어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 등 모두가 자원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으로 열심히 일하는 협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언어 단체의 구성원인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사항은 언어능력 배양 (Kapabligo de lingvo)입니다. 강습, 합숙, 카톡방 학습 등의 교육에 최신형 학습체계를 활용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카톡과 함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스카이프, 줌 등의 화상교육에 관한 교육을 자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숭고한 삶을 살며 100주년 행사, 48차 청년회 공동 세미나, 10차 아시아-오세아니아 대회 등도 우리 모두 함께 일하고, 마음을 합쳐 진실로 봉사하며, 실력 있는 세계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100-jara Jubileo de KEA

KEA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현황

오순모 / 100주년 준비사업회 사무국장

내년으로 다가온 한국에스페란토협회(KEA)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비하여 2019년 3월에 결성된 준비위원회의 준비모임이 6차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각 모임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차 모임 (3월 25일): 준비위원장(정원조)과 준비위원(이영구 강헌구 박용승 박찬복 신현규 오순모 유영애 유필근 이남행 이용철 정유로 최유식 최정철 허성)이 선정되었으며, 사업주제(‘지나온 100년의 발자취’ 혹은 ‘앞으로 100년을 위한 발전 방향’)를 정했다. 그리고 회원들로부터 주제에 맞는 사업을 공모하여 다음 달까지 사업내용을 확정 짓기로 했다.

2차 모임 (4월 19일): 11가지 사업 확정, 자문위원단 구성, 2020년에 개최될 제52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를 2박 3일 동안 열기로 했다. 장소는 세종문화회관과 남산 유스호스텔이 거론되었으며 100주년 홈페이지 도메인(<http://100kea.esperanto.or.kr>)을 정했다. KEA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은 오순모 준비위원이 맡기로 했다.

3차 모임 (5월 30일): Memrise(외국어 배우는 앱) 번역을 추천(김형근), 출판 및 전시는 Zamenhof-klubo와 Libroservo 운영위원들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유튜브 단기강좌 완성(허성), 이재현 선생 사전 출판(출판대금은 이재현 선생의 장남인 이형진 우해 해평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부터 연초에 한 번씩 2회에 걸친 지원을 약속받음). 자문위원 구성(곽종훈 김상익 김시현 김영명 김우선 마영태 박강문 박기완 박화중 서길수 서진수 이낙기 이중기 전경덕 조명자 최대석 한덕섭), 우표전시회 장소 및 소요경비 보고, 회원 수 배가를 위한 전국동시강좌, 북한 에스페란티스토 초청 진행 상황 보고 등이 있었다.

4차 모임 (7월 5일): 각 준비위원들의 담당 확정.

순	사업 내용	담당
1	유튜브 단기강좌 제작	허성, 박찬복
2	전국동시강좌 개최를 통한 회원 수 배가	박용승
3	우표전시회, 나만의 엽서 제작	강헌구
4	Lernu.net 한국어판 번역 완성	신현규, 정유로
5	북한 에스페란티스토 초청	이영구
6	한국에스페란토백과사전 편찬·출판, 출판물(논문포함) 도서자료목록 제작 및 전시	이용철
7	기념물 및 출판물(논문포함) 전시(사이버 전시 포함)	이남행, 유영애
8	100주년 기념사업 홈페이지 제작	최정철, 유필근
9	이재현 사전 개정 보충(한-에 사전 우선 고려)	허성
10	예산심의 및 집행과 결산, 후원금 모금	최유식
11	멤링고(에스페란토를 배우는 어플): 아시아인을 위한 번역어플 제작	김형근
12	전체 업무 조정 진행	정원조

5차 모임 (9월 8일): 유튜브 단기강좌 초급 완성, 중급은 미정(허성), 이재현 사전 개정 보충에 대한 내용(허성), “한국에스페란토백과사전” 편찬사업을 위한 편집위원 회의보고(이용철), 사업진행을 위한 소요경비 예산서 제출(최유식), 협회사무실의 확장 이전(리모델링 포함) 사업도 100주년 사업에 포함하며, 이 사업담당은 오순모, 최정철 위원이 맡기로 했다.

6차 모임 (10월 28일): 허성 위원을 이재현사전 편찬 실행위원장으로 선정하고, 엠블렘 공모를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로 하였다. 우표전시회와 역사적 기념물 발굴 전시회는 외부전시는 하지 않고, 52차 한국대회장에서 하기로 했다. 또한 대회장은 ‘Hi Seoul’(영등포)로 정하고 숙소와 대강당 예약을 빠른 시일내에 강헌구 사무국장이 알아보기로 했다. ☺

● 51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

결국 그 날은 왔고, 새 바람이 불었다

- La 51a Korea Kongreso de Esperanto -

KANG Byounghun (Dandi)
Sekretario de Gyeongnam-filio de KEA

La 51a Korea Kongreso de Esperanto estis organizita de Gyeongnam-filio de KEA, fondita en majo 2018, kun la temo "Kion ni faru okaze de la 100-jara jubileo de Korea Esperanto-Asocio" kaj la subtitolo "Venis nova vento al Jinju" en la urbo Jinju de la 5a ĝis la 6a de okt.. Partoprenis 129 esperantistoj inkluzive 21 alilandanojn (Japanio 14, Ĉinio 4, Belgio 1, Hispanio 1, Brazilo 1).

La membroj de la nova filio sindoneme kaj kunlabore preparis la kongreson. La kongresejo estis Baeyeong Element-Lernejo, kies estrino LYU Jinsuk (Saliko) estas prezidanto de la filio, kaj tial klasĉambroj, granda halo ktp de la lernejo estis disponeblaj por ĉiuj programeroj eĉ inkluzive de la amasloĝejoj por la partoprenantoj.

Por la vizitantoj al Jinju, ne tiel granda kaj

malproksima de Seulo, Jinju-urbodomo finance subtenis la kongreson per 21 loĝejoj samnivelaj kun hotelo, manĝoj por eksterlandanoj kaj du turismabusoj por Postekskurso. Dank' al tio LKK povis multe ŝpari elspezon por la kongreso. Ĉar okazis Festivalo de Lampolumo sur rivero apud la kongresejo, partoprenantoj povis ĝui ne nur la kongreson, sed ankaŭ la belajn lumartaĵojn.

En la kongreso d-ro SO Jinsu, estrarano de UEA, estis elektita kiel nova prezidanto de KEA por 2019~2022, unuvoĉe de KEA-delegitoj. Ĉiuj ĉeestantoj elkore gratulis lin kaj li salutparolis per la vortoj "Malmulte paroli sed multe labori".

Kun Fermo la verda standardo estis transdonita al Seul-filio de KEA, kiu gastos La 52an Korean Kongreson kun La 100-jara Jubileo de KEA.



Kun LKK-anoj de la 51a Korea Kongreso de Esperanto

- 일본 나라에서 개최된 제 2차 한일 공동 에스페란토대회(2018.10.1~14) 기간 중 열린 제50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KKE)에서 제51차 KKE를 2019년 10월 5~6일 경남 진주 주관으로 경남 진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지방 소도시 진주의 10월은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기간으로 숙소가 매우 부족하다. 일년 365일 동안 시내에 차막힐 일이 없는 동네이지만,

하필이면 날짜를 고르고 골라 유일하게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10월 첫째 주 주말을 선택했는지 걱정이 앞섰다. 내가 개최도시를 대표하여 녹성기를 이영구 회장으로로부터 받았다. 한국대회가 진주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의 Belmonto (YAMASITA Toshihiro) 씨는 그 자리에서 ‘한국대회 참가비’라며 한국 돈으로 5만원을 건네주었다. 첫 번째 참가비를 손에 받아 들고 보니, 대회가 우리 고장 진주에서 열리기는 열릴 모양이었다. Belmonto 선생을 참가번호 1번으로 배정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한국대회 준비는 시작되었다.

2년 차 신설 경남지부(2018년 5월 19일 창립)에서 한국대회의 준비 및 마무리까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진행했는지, 다음 대회를 준비할 지부를 위해 준비, 진행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자 한다.

대회 기획 및 준비

허성 사무국장이 진주에 3회 방문하여 준비사항, 주의사항, 대회진행에 따른 지침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대회 장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배영초등학교, 대회 주제는 ‘한국에스페란토협회 창립 100주년에 즈음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Kion ni faru okaze de la 100-jara jubileo de Korea Esperanto-Asocio)’, 부제는 ‘진주에 새 바람이 불어왔다. (Venis nova vento al Jinju)’로 정해졌다.

준비기간과 준비위원

대회 준비를 위해 따로 시간을 마련하지 않았다. 매주 화요일 저녁 두 시간씩 모였던 공부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누었을 뿐, 본격적인 준비는 8월 말부터 시작됐다. 업무를 따로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들을 스스로 찾아 처리하면서 단 한 번의 의견충돌 없이 즐겁게 대회를 준비했다.

가장 큰 난제였던 숙소

숙소문제가 준비 단계부터 대회 마치고까지 큰 문제였다. 다행히 대회장인 배영초등학교 돌봄 교실 4개를 amasloĝejo(단체 숙박시설)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 침구류는 일부는 구입하고, 부족분은 경남회원들의 집에서 가져온 것들로 대체하였다. 학교시설이 매우 깨끗하고 최첨단 시설에다 교실 바닥에는 난방도 잘 되어 있었

다. 화장실과 세면실도 지난겨울에 새로 수리하여 아주 쾌적했다. 외부 숙소 예약 관계는 조만진(Kosmego) 씨의 헌신으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졌다.

진주시청의 재정적 도움

류진숙(Saliko) 경남지부장의 노력으로 ‘진주 축제 기간에 찾아오는 많은 외국인과 진주에서 열리는 한국대회’를 적극 홍보하여 진주시청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그 지원 내용은 10월 5일(토) 저녁 호텔급 숙소 21실의 경비와 식비 지원, 대회후관광을 위한 관광버스 2대였다. 외국 참가자 전원에게는 숙박과 세끼의 식사비용을, 원로 회원들께는 편안한 숙소로 모실 수 있어서 숙박비를 대폭 절약할 수 있었던 게 대회경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었다.

대회 연락망

2019년 9월 3일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였다. 이 대화방을 통해 준비사항과 서로의 연락사항을 용이하게 했다. 대회 성공 요인의 절반 이상이 카카오톡을 사용한 정보의 공유였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회 진행을 위해 시도해 본 것들

- 1. Google Excel 사용:** Excel을 데이터베이스처럼 이용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했다. Google Excel에 정리된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200명 미만의 인원관리와 입금관리, 단체버스 신청, 공지사항 등이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 또한 엑셀 파일 그대로 출력해서 대회 책자에 참가자 명단을 실을 수 있었고, 현장 참가자 파악에도 유용했다.
- 2. Zello 무전기 사용:** 대회장 1층과 3층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진행요원끼리 동시에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하기에 카카오톡 또는 전화기 사용은 역부족이었다. 마침 Zello 무전기 앱을 알게 되어 유용하게 사용했다. 이 무전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전국으로 신호가 가며, 일반 무전기보다 좋은 점은 우리들만의 채널을 구성하여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용료도 무료이다.
- 3. 행사보험 가입:** 대회장이 공공건물인 학교이므로, 혹시 모를 불미의 사고 시 학교장이자 경남지부장인

류진숙 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사보험에 가입해 두었다. 사망, 장애, 치료비와 법적 대응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이었다. 대회기간 이틀 동안 예상 참가자 120명의 보험료는 16만 원이었다.

4. **식사,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 맛있는 음식에 비해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았고, 많은 인원이 이동할 필요 없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시간 절약이 많이 되었다.

대회 책자

접수처를 차림과 동시에 박용승(Nema) 회원이 금방 발행된 대회 책자를 가져왔다. 내용도 알차고 고급용지에 천연색으로 꾸며져 보기 좋았다. 다만, 대회 책자에 경비가 많이 지출되어 허성 사무국장의 걱정이 살짝 보였으나 대회 경비에 적자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

적재적소에 게시한 대회장 안내문

대회가 시작되기 전, 국내외 대회에 참가 경험이 많은 이충원(Dianto), 배성애(Flua) 회원의 수고로 대회장 구석구석에 화장실, 숙소, 강의실, 시간표 등 과하다 싶을 정도의 안내문들을 컬러 프린트해서 필요한 곳에 붙였다. 심지어는 쓰레기통에도 ‘분리수거하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대회 전 관광

한숙희(Kristalo) 님의 안내로 진주성, 축석루, 개천예술제 관람이 있었다. 다수의 회원이 진주를 처음 방문한다고 했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민의 항쟁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접수처와 참가인원

참가자가 129명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인 108명, 외국인 21명(일본 14, 중국 4, 벨기에 1, 스페인 1, 브라질 1)으로 특히 다수의 일본 에스페란티스토들의 방문이 눈길을 끌었다. 국내외로 많이 다니신 분들답게 접수를 마친 참가자들은 대회 공식 시간 전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분과 모임, 시내 관광, 식사 등에 조용히 알아서 참여했다. 대회 전날부터 대회 당일 아침까지 일본 Jasuo Tabuči 씨가 일손

이 모자란 경남지부 회원들을 도와주어서 고마웠다. 우리는 그를 수입한 외국인 노동자로 부르기도 하고, 전생에 한국인이었을 것이라며 ‘duonkoreo’(반은 한국인)라 불러 주기도 했다.

대회 전 행사

Amira(전경옥) 노래교실, 대의원 임시총회, 외국인과 대화, 학습이 4개의 방에서 이루어졌다. 대의원 임시총회에서는 신입회장으로 서진수 강남대 교수를 선출하였다. 세계에스페란토협회 임원으로도 활동하는 서진수 회장은 2022년 제54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까지 재임한다.

개회식과 식후 행사

학교 강당에서 조문주(Hejna) 회원의 진주검무 축하공연 후, 허성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회식이 열렸다. 개회선언, 대회사, 축사, 지부/지회 활동보고, 시상 등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 후 의자만 뒤로 옮긴 채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식사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정다운(Milda)의 사회로 경매가 진행되었다. 또한 2019 서울국제하모니카대회에서 3위에 입상한 국남주(Harmoniko)씨의 하모니카 연주가 풍성했다.

친교의 시간이 끝나고, 진주 한국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유등축제 구경에 나섰다. 며칠 전 들이닥친 18호 태풍 미탁에 대비하기 위해 남강 위에 띄워 둔 화려한 유등을 거의 철수했지만 그런대로 축제를 즐길 만했다. 대회준비위원들은 가을밤 남강에서 맥주 한 잔 권해 드릴 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좀 아쉬웠다.

숙소

남강 유등축제 구경을 마치고 들어온 대회 첫날 밤, 걱정했던 숙소문제에 다행히 불편함이 없었다. 다만 대회장 배영초등학교가 환경지킴이 학교로 지정되어 교내에서는 음주가 안 되고, 개인용 물컵을 사용해야 되며, 학교 내 보안사항으로 Wi-fi까지 지원되지 않은 불편함을 감수해준 참가자들이 고마웠다. 플라스틱 생수병을 물컵처럼 재사용하는 임기응변을 발휘해 주었다.

혼자 독학한 실력으로 대회장을 찾은 중학생

대회 첫날, 젊은 청년이 멈칫거리며 들어오더니 더

듬더듬 에스페란토로 몇 마디를 했다. 계속 에스페란토로 곧잘 대답을 해서 일본 학생인가 하고 어디서 왔는지 물으니 “Mi loĝas en Jinju”(나는 진주에 삽니다)라고 했다. “Jinju?!” 우리 동네에 사는 학생인데 전혀 모르는 학생이었다. 진주 사는 중학교 3학년생이며 마영태 선생님의 교재로 혼자 배웠고, 오늘 처음 에스페란토로 말해 본다고 했다. 어찌나 기특하던지 류진숙 경남지부장이 “지부장의 권한으로 참가비는 Senpage(공짜!)”라고 했다. “Senpage? 준비해 왔는데...” 라면서 머리 꾸벅 숙여 “Dankon(감사합니다)” 한다. 진주가 좁은 동네이건만 이런 인재가 있는 줄 꿈에도 몰랐다. 둘째 날도 참석해서 줄곧 일본 젊은 에스페란티스토와 함께 다니며 에스페란토로 대화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리브로세르보 실적보고

이용철(Joĉjo) 님이 주관한 리브로 세르보에서는 도서 74책, 음반 3점, 엽서 10매, 녹색기 5점 등 모두 92점, 금액으로는 판매 822,000원, 도서교환권(제2회 에스페란토 책의 날 시상 상품) 261,000원으로 함께 1,083,000원의 실적이 있었다. 역대 가장 많은 수량, 금액의 기록을 세웠다.

대회 둘째 날

조식, 중식도 역시 출장 뷔페였다. 원불교, 뽕링고, 최근 한일관계에 따른 일본 에스페란티스토의 분과 모임이 있고, 11시에 폐회식이 있었다. 제 52차 한국대회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정해지며 제 51차 한국대회는 폐막되었다.

대회 후 관광

13:30~18:00, 버스 두 대에 나누어 타고 남해안 삼천포 일대를 들렀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해와 삼천포에만 있는 전통 멸치잡이 죽방렴을 견학하고, 삼천포 케이블카에 탑승했다. 경비 중 버스 비용은 진주시청의 도움으로 해결하였고, 그 외 케이블카 탑승 등의 경비는 각자 부담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청명한 남도의 가을 날씨 덕분에 다도해 절경을 볼 수 있어서 모두 대만족이었다.



리브로세르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마무리

대회를 마치고, 카카오톡 단체방의 이런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 지방에서 우리 운동의 동력을 응집시키고... - 전경덕”, “이제 한국의 에스페란토대회가 축제의 한마당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 같아 참 기쁩니다. 그리고 운동자체도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습, 친구, 문화, 기부, 섬김 등 - 박기완”.

폐회식 마지막에 다음 대회 개최지인 서울의 이남행 지부장에게 녹성기가 전달될 때, 지난해 일본에서 그 녹성기가 내 손에 쥐어지던 순간이 생각났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51차 한국대회, 그 시간은 결국 우리에게 왔다 갔고, 새로운 바람과 함께 우리의 에스페란토 한 해가 더해졌다. ♪



52차 한국대회(2020년)를 개최할 서울지부에 녹성기 전달

넘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들꽃 주중식 / 농사꾼

instalu "Gboard" por tajpi Esperanton

‘여기는 51차 한국 에스페란토 대회 방입니다.’

9월 3일, 한숙희(Kristalo) 님 초대로 카카오 속닥방에 들어갔다. 이 방 게시판에는 참가자들이 알아야 할 것을 한눈에 보도록 해놓았다. 나는 차를 몰고 가면 서울 데가 마땅할지 궁금하였는데,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쓴다는 말이 있어서 마음이 놓였다. 에스페란토 교육 일꾼 박용승(Nema) 님이 올려놓은 에스페란토 익히기 자료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속닥방은 모임을 마치고도 보름이 지날 때까지 열어놓았고, 나누고 싶은 말을 쪽지글, 문서, 사진으로 주고받았다. 나는 야마시타 토시히로 (Belmont) 님이 낸 책 2권을 이 속닥방에서 주문하였고, 모임에 가서 받았다. 그리고, 나는 모임 뒤 소풍을 가지 못하였으나, 속닥방에 올려놓은 사진으로 마치 소풍에 참가한 듯 사진 바다 경치를 구경하였다.

이 속닥방에는 샷갓표 붙은 알파벳도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에스페란토 글자판 정보도 올라왔다.

- Karaj kamaradoj, instalu 'Gboard' por tajpi Esperanton. Ĝi estas uzebla ankaŭ en multaj lingvoj. (Belmont)

- Ho, bonege! / Jam mi uzas 'Gboard' por tajpi Esperanton. / Vi pravas. La gboard estas tre uzebla! / Koran dankon, pro via afableco. (sovaĝfloro)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라서, 맞장구를 쳤다.

마흔 해 만에 만난 분

트럭을 몰고 1시간 걸려 대회 장소에 닿았다. 진주 배영초등학교 운동장에 내렸다. 건물 쪽으로 들어서면서 일본 에스페란티스토 식구들이 나누어 주는 종이 두장을 받았다. 일본에스페란토대회에 오라는 알림장이다.

접수대에서 이름표와 대회 책을 받았다. 여기서 여러 사람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일본에서 오신 쇼우야마 미끼꼬 님을 만났다. 2018년 2월 쿠바 하바나에서 열린 제9차 아메리카에스페란토대회 때 만난 분이다. 만나자마자 편지 한 통을 전해 주셨다. 미끼꼬 님한테 에스페란토를 배웠다는 분이 내가 쓴 책 <잘 배우는 길>을 읽어보고 쓴 한글 편지다.

부산에서 오신 최향숙 님은 마흔 해 만에 만났다. 우리는 손을 꼭 잡으며 인사했다. 에스페란토를 처음 배우던 때에 만난 분이다.

김인홍 님도 만났다. 이번 만남이 세 번째다. 에스페란토 원불교 모임(국제선방)에서 두 번 만났는데, 영광 모임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한 방에서 지내기도 했다. 우리는 이번 가을에 어느 외국 모임에 함께 가보자고 하였다가 취소하였다. 그래서 일을 계획할 때 자세히 물어보아야 한다는 말을 주고받았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로 살짝 인사하는 분이 있었다. 처음 만난 분이 다. 이름을 적어놓고 사진도 한 장 찍었다.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누자고 하였다.

말은 짧게 일은 많이

이번 한국대회 준비모임에서 나한테 기록을 부탁하였다. “늙은이한테 맡겨서 일이 되겠어요? 강병훈(Dandi) 님이 재미있게 쓰셔야지 ...” 나는 강병훈 님이 하실 일이라 말했으나, 말은 일이 많아서 그것까지 해내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피할 수 없겠구나!

내가 에스페란토 나라에 들어온 지는 오래되었으나, 깊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다섯 해가 지났다. 젊은이라면 귀가 뚫리고 말도 술술 할 만큼 긴 시간인데 ...

나는 초등학생 숙제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방, 공부방, 회화방을 둘러보고, 시간 맞추어 대의원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회장과 부회장을 새로 뽑는 일이었다. 새 회장으로 대학교수 서진수님을 추천하였고, 모두 찬성하여 서진수님을 새 회장으로 뽑았다. 미리 이사회에서 의논하여 추천한 부회장 후보도 대의원 모두가 찬성하여 강병훈, 김인홍, 오순모, 정현주 네 분을 부회장으로 뽑았다. 이어서, 새 회장 서진수님은 강현구님을 새 사무국장으로 추천하였고, 모두 손뼉으로 환영하였다.

새 회장은 우리 힘껏 에스페란토 운동을 이루어갈 것이라며 ‘말은 짧게, 일은 많이’ 하겠다는 말로 인사하였고, 대의원 모두 한국에스페란토협회 일꾼을 맡아 주어 고맙다는 손뼉을 쳤다.

나비 박사 석주명

개회식 인사말에서 회장 이영구님은 새해에 마포구에서 중구로 사무실을 옮기고 새 일꾼들이 충무로에서 에스페란토 운동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 하였다.

류진숙(Saliko)님은 경남지부장이면서 이번 대회가 열린 배영초등학교 교장이다. 이 분이 환영 인사말에서 ‘이 학교 어린이들도 에스페란티스토로 자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한 말이 내 마음에 남았다.

지부와 지회 일꾼들은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스페란토 활동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큰 그림판에 나비 박사 석주명 선생 사진을 비추고서 한국 에스페란토 운동에 앞장서 주신 고마움을 기리며 머리 숙여 묵념하였다.

대통령도 부럽지 않습니다

잔치에 노래와 춤이 빠지지는 않았다. 다른 잔치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하모니카 연주도 들었다. 정다운(Milda)님이 이끈 경매도 뜨거웠다. 그러나 시간이 짧았다. 그렇다고 잔치를 2박 3일 동안 열기도 쉽지 않지. 이번 잔치에서는 그 아쉬움을 남강에 떠 있는



밤 깊도록 이어지는 에스페란토나라 이야기

갓가지 모양의 화려한 등불 구경 밤 나들이로 달렸다.

진주 개천예술제 기간이라 호텔 예약이 어려웠을 텐데, 늙은이들은 호텔에서 자도록 방을 잡아주었다. 밤이 깊어 가방 가지러 학교로 돌아왔더니, 조만진(Kosmege)님이 우리를 자동차로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다. 자연스럽게 열 사람이 맥주 한 잔 마시자며 한 방에 모였다. 수십 년을 한 길로 걸어온 한국 에스페란토 운동 역사의 산 증인들이다. 지난날 이야기를 되살려 풀어낸다. 술잔이 오가고 덕담이 오갔다.

“이만큼 이어올 수 있었던 게 여러 동지 덕분입니다. 어려움도 있었으나 지나고 보니 다 좋았습니다. 대통령 안 부럽습니다. 하하”

이 말에 지금 대통령을 안 좋게 보는 말이 잠깐 비쳤으나, 나라를 바로 세우고 평화 통일을 이루려고 애쓰는 대통령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말에 금방 그쳤다. 서로 달랐다. 하지만 에스페란토로는 하나였다. 1시에 우리 방으로 돌아왔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듣게

아침 8시부터 1시간 동안 분과 모임이 열렸다. 나는 차 모임 방에 잠깐 들렀다가 ‘amike, serioze, amuze’ 방으로 들어가서 마칠 때까지 머물렀다. 여기서 ‘1923년 간토 대지진 대량 학살의 잔향’을 다룬 책 “Septembre, surstrate en Tokio”의 에스페란토판 번역자 마미야 미도리님 이야기를 듣고, 책을 한 권 샀다. 나는 이 일을 직접 겪은 함석헌 선생 강

연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10시부터 2시간 동안 체육관에서 ‘Labortaskoj por la cent-jara jubileo de KEA’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용철, 허성, 서진수, 정유로 님이 한국에스페란토협회 100주년 기념사업 13가지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을 이끌었다. 사업 과제를 맡은 분 가운데 김형근 님은 아시아인을 위한 에스페란토 학습도구 만드는 일에 대하여 설명을 덧붙였고, 중국에스페란티스토 장웨이 님은 북한 에스페란티스토 초청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북한에 에스페란토를 알리며 여행한 경험을 말하기도 했다.

정유로(Unika) 님은 에스페란토로 먼저 말하고, 그 내용을 한국말로 간략하게 다시 말했다. 이렇게 해주니 앞에서 귀 기울여 들었으나 놓친 부분을 또렷이 알게 되어 좋았다. 에스페란토를 말하고 알아듣는 수준 차이가 큰 이런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듣도록 배려하는 이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키 큰 사람은 높은 선반에 얹힌 물건 내려주는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

박용승 님이 내놓은 에스페란티스토를 배로 늘리자는 약속 종이에 나는 선뜻 누구 이름을 적어내지 못하였다.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내가 만나는 교사들과 어린이들을 평화 누리 에스페란토 나라로 모시는 일에 내 조그만 힘을 보탬 것이라 다짐하였다.

넘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세계 밥을 참 맛있게 먹었다. 속으로는 낯선 분하고 한 상에서 먹으면서 말도 걸어야지 하면서도 낯익은 분하고만 먹었다. 마지막 낮밥 먹는 밥상에서 내 옆에 앉은 박강문(Pensanto) 님이 갑자기 감사 기도를 부탁하였다. 박강문 님은 이낙기(Sodeban), 전경덕(Lampiro) 님과 내가 스카이프로 한 주에 두 번 에스페란토 소셜 읽기 공부를 하면서 자주 만나는 분이다.

오늘도 하늘과 땅과 착한 사람을 시켜서
우리를 먹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출입)

이 기도문에 ‘넘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라는 말이 들어 있다. 내 맘속에 새겨놓은 말이다. 눈에 물을 댈 때나 공부를 할 때, 놀러다닐 때에도 이 말

을 되새긴다. 이 밥상기도문을 적어달라는 박강문 님 부탁을 받고, 우리 집 밥상머리에 붙여놓은 밥상기도문을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다.

이 밥상에서 마주 앉은 부부 에스페란티스토 김철안정희(Mira) 님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사진도 찍고, 순천에 사는 내가 아는 분들에게 에스페란토를 가르쳐 드릴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집에 돌아와서 순천 사는 분들에게 연락하여,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다. (2019. 10. 21.) ☞

La 1a Esperanto-Forumo de Seulo kaj Shanghai (제1차 서울·상하이 에스페란토포럼)

제13차 중국에스페란토대회(2019.11.8~10, 샤오싱)에 참석한 서진수 KEA 회장은 한국의 서울지부와 중국의 상하이에스페란토협회 주최로 ‘La 1a Esperanto-Forumo de Seulo kaj Shanghai(로마자표 기법 선호)’를 개최하기로 상하이 에스페란티스토들과 의견을 모았다. 제2차 포럼은 제52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에서 열기로 했으며, 초청 상대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La 2a Esperanto-Forumo de Shanghai kaj Seulo로 상대 도시를 번갈아 가며 표기하기로 했다.

Kiam: 17a~22a de decembro, 2019
(기간: 2019년 12월 17일(화)~22일(일))
Loko: Ŝanhaja Universitato de Internaciaj Studoj (Shanghai International Studis University: SISU)
(장소·숙박: 상하이외국어대학교, 교내 호텔)

Temo: ‘Loĝejo: Historio kaj Nuntempa Tendenco’
(주제: 두 나라-도시의 의식주 중 주<住>, 주거지로 정하고 한중 두 나라의 주거 역사와 현황에 대한 발표와 토론)

Tagordo(일정)
• Studvizitoj al lokoj en Ŝanhajo kaj Hangzhou.
(처음 3박4일은 상하이+항저우<1일 당일 여행> 지역 탐사 및 주제 관련 관광, 짐 없이 인접 도시 하루 여행)
• 21a de decembro(sab.): Forumo kun 2 prelegantoj po landoj, kun kelkaj podianoj
(21일<토>: 주제 관련 포럼, 각국 2명씩 발표)

- 서울 지부 -

● 39차 남강학교

La 39a Namkang Esperanto-Lernejo – 16~17 novembro 2019, Namkang Malnova Lernejo –

PARK Yongsung (Nema) / Korea sekciestro de ILEI

Al la 39a Namkang Esperanto-Lernejo sin turnis 37 personoj, inter kiuj troviĝis 9 junuloj kaj la unuafojajn oni nombris 9.

La programon konsistigis 3 partoj: Lingva, Arta kaj Z-(s)eminario, ĉiu per 3-hora kurso. Oni elektis po unu el 5 lingvaj kursoj, t.e., Enkonduka (gvide de Elina), Gramatika (Atena), Parol-trejnado (Ella), Libera konversacio (Ermito) kaj Skeĉoj (Vintro). Arta Vespero, kiun Elina prezidis tute en Esperanto, enbrakumis la karakterojn de Interkona, Surpodie, Arta prezentado kaj similaj.

Oni planis, ke la Z-eminario okazu pleje en

Esperanto, por ke ni defiu al la uzado de la lingvo eĉ en disputa nivelo. Tamen la proponita temo 'Kiel vastigi, Kiel duobliĝi' stimulis ankaŭ la komencantojn sin enmiksi arde en la diskutadon kaj ni viktimitigis la unuan intencon kontraŭ la pli-profundiĝo en la tre grava temo por venonta jaro.

Prezentoj: D-ro SO Jinsu, prezidanto de KEA, prezentis la kongresojn de tri aziaj landoj: Koreio, Japanio kaj Ĉinio. Antaŭ pogrupo diskutado faris malferman prezentadon s-ro CHOI Jeong-cheol pri Seula movado, kaj f-ino OH Heeyeon pri la Junulala.

Diskutado: Sub la nomo de Z-eminario, oni grupiĝis en tri diskutgrupojn, analizis la nunecon de la movado kaj esploris la vojon al la estonteco.

Grupo A, en kiu parto-prenis seulaj amikoj, elektis la vorton 'Kapabligo' kiel akcentindan por garantii nian daŭran progresadon, kaj unue por lingva plibonigo tuj lanĉis la Kakaotokan Stud-grupon, kiun zorgos s-ro KIM In-hong kiel gvidanto.

Grupo B, kie aktivis membroj de Gyeongnam-filio kaj junuloj de HUFs



(Hankuk Universitato de Fremdaj Studoj), analisis por la movado la celon, realan situacion, rimedojn kaj volon.

Grupo C, konsistanta el veteranoj de Daegu-filio, sekretario de KEA kaj aktivaj membroj de ILEI, enpenetris rekte en la tiklan punkton, nome, la problemon kaŝitan, kaj oni proponis starigon de la Komitato de Edukado en la kadro de KEA.



– 2019년 11월 16~17일 경북 청도에서 39차 남강에스페란토학교 가을학기가 열렸다.

제28차 국제연수회와 함께 ‘에스페란토 마을’ 형식으로 열렸던 128명의 참가자를 기록한 남강봄학기(2019.3.23~24)의 열기와 서울에서 개최된 제102차 세계대회(2017.7.22.~29) 이후 한국에스페란토운동의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을 준비하며, 서울지부, 서울에스페란토문화원, 광주전남지부·전북지부의 학습모임 등의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남강학교의 역할과 좌표를 새로이 설정하고자, 2개월 전부터 중급자 그룹에서 의논하며, 1개월 전 기본 틀과 함께 카카오톡 그룹이 개설되었다. 카카오톡 그룹에는 75명의 관심자가 참여했으며, 사전신청 32명, 불참 3명, 당일 추가신청 8명으로 37명이 최종 참가했다. (청년 9명, 남강 첫 참가자 9명 포함)

프로그램

토요일 오후/저녁, 일요일 오전의 각 3시간의 블럭에 Lingva(언어학습과 훈련), Arta(예술적 활용), Z-(s)eminario(토론)란 성격이 부여되었다. Lingva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가 함께 하는 시간이었다.

Lingva 언어학습 과정에는 입문초급(Elina 박수진), 심화문법(Atena 장수미), 패턴회화(Ella 김인혜), 자유회화(Ermito 김인홍), 노래촌극(Vintro 조원석) 등 5개 과정이 개설되었다. 최근 독학으로 입문한 양현준, 최승호씨가 입문초급반에서 발음, 에스페란토 16개 문법과 문장 기본 구조를 배웠으며, 다른 중급자들이 도우미로 초대되어 발음 시연과 조언을 주었다. 문법반은 한국인에게 취약한 문장의 기본

틀, 거꾸집, 보어 등을 다루었다.

Elina의 사회로 진행된 Arta 시간은 참석자 소개, 퀴즈대회, 에스페란토 장기자랑과 함께 친교의 시간을 겸했다. 입문반 참석자들은 에스페란토로 자기소개를 했으며, 촌극반 학생들은 연습한 촌극을 감정을 실어 선보였다. 학습도구와 바꿀 수 있는 쿠폰을 상품으로 걸고 Ella가 선보인 ‘퀴즈퀴즈’는 모두의 귀를 쫓긋하게, 손을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웃음과 박수 속에 진행되었다. 문형식 회화도구 Provu-II(박기완저), 50-Esperante(마영태 역)의 활용법을 연습한 패턴회화반에서는 통역식과 암송식 훈련의 모습과 효과를 보여 참석자들에게 많은 기대를 갖게 했다. UEA 임원으로도 봉사하고 있는 한국에스페란토협회(KEA)의 서진수 회장은 한·중·일 3국의 에스페란토대회 모습들을 비교 소개했다.

토론 수준에서 에스페란토 사용을 시도한 Z-eminario에서는 KEA 100주년을 준비하며, ‘Kiel vastigi, Kiel duobligi’란 주제로 ‘어떻게 홍보하며, 가르치며, 양육하고 있는지? 열매는? 문제가 있는지? 보완점은 무엇인지?’란 내용을 다루었다. 첫 시간에는 서울에스페란토문화원(SEK)과 서울지부의 활동 모습 소개(최정철), OLIVO(한국외대 에스페란토 동아리) 활동 소개(오희연, OLIVO 회장)가 있었으며, 둘째 시간에는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토의하였고, 마지막 시간에는 그룹별 발표와 자유발언을 가졌다. 김인홍 부회장, 서울지부, SEK 팀으로 주로 구성된 A 그

룹(발표 김인홍, 이충원)은 초급 후 지속성장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본 후, Kapabligo란 해답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행안으로 카카오톡에서 자체 학습 그룹을 시작하기로 했다. 경남지부와 OLIVO 청년들이 머리를 맞댄 B 그룹(발표 조문주)은 GROW 회의 기법을 사용하여 에스페란토 모임의 목적, 현실, 도구와 의지 등을 분석하여 운동에서 취약한 부분과 보완을 위한 포인트를 발표했다. C 그룹(발표 강현구)은 대구지부의 원로선배님들, 신입사무국장과 ILEI(세계 에스페란토교육자연맹) 회원들이 현재의 운동 모습에 대해 진단하고, KEA 차원에서 가야할 바를 토의했다. 자유발언에서 서진수 회장은 모든 에스페란티스토의 엘리트화에 대해 언급했다.

특징과 장면들

제102차 세계에스페란토대회(서울) 이후 최근 학습 열의자는 100명 가까이 되며, 서울과 전라남·북지역에서의 활성화로 바람직한 분산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남강학교는 자체의 독특한 성격을 시험하고자, 이번에는 35~40명을 목표인원으로 설정하고 준비그룹 밖에서의 추가 홍보를 하지 않았다. 인원이 갑작스레 줄어든 것에 우려도 있었으나 덕분에 내실이 더 탄탄해지는 수확이 있었다.

Arta 시간은 입문자들의 소개부터 대부분 에스페란토로 진행되었으며, 에스페란토로 진행될 계획이었던 토론시간은 훈련의 목적보다 설정된 주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절반 이상 한국어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덕분에 모든 참가자가 운동에 대한 주제 토론에 적극 참여한 점으로 보상되었다.

서진수 회장은 사진사 역할을 자처하며 우리 운동에는 위아래 없이 각자가 관심있고 잘하는 부분을 맡아 전체를 구성하며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현규 청년회 회장, OLIVO의 오회연 회장과 회원들, 진주와 서울에서 독학한 청년들이 참석하여 참가자의 평균연령을 낮추었다. 모임의 생명력 기준인 Novaj amikoj 비율은 총 37명 중 9명으로 24%로 대단히 높았다. Junuloj와 Novaj Amikoj를 함께 보면 14명으로 신선함 지수는 38%로 계산된다.

후원이 어느 때보다 많았다. 총 13명의 개인과 단체 이름으로 음식, 책자, 학습도구들이 후원되었다. 후원자: 강현구, 김영명, 박수진, 박종영, 박화중, 서진수, 오순모, 유필근, 이충원, 대구지부, ILEI, Ponte(박용승), Eüheno Kovtonjuk (우크라이나에스페란토협회 회장), .

ILEI 한국지부는 28차 국제연수회로 최대 인원이 함께 했던 2019년 남강학교 봄학기에서 학습관리를 위해 모든 참가자에게 바인더 사용을 제안하며 선물했는데, 이번 남강가을학기에서도 모임의 기본자료는 물론 각 반의 교재와 보조도구들도 바인더 내지의 형식으로 준비하여 제공하였으며, 자신의 단계에 맞는 유용한 도구들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했다. ILEI는 교재와 이름표를 제작하여 후원했으며, Lasta(박미숙) 회원은 준비위원으로 수고했다.

문형연습 도구 2가지로 훈련한 패턴회화반은 Arta 시간에 훈련방법을 선보였다. 특히 Kosmegeo(조만진)는 그림 한 장을 가지고 강제로 중단할 때까지 10분 이상 에스페란토 표준회화문장들을 빠르게 말하는 시범을 보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냐는 놀라움을 자아냈으며, 회화연습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향후 계획

현재까지 전국여름·겨울강좌와 남강학교의 학습프로그램을 설계해온 카톡그룹 KEA 중급자 모임은 이번 남강학교를 마지막으로 임무를 다하고, 강현구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2020년에는 KEA의 공식기구로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전국의 교육부문 활동가들이 협력하는 계획이 의논 중이다. KEA의 많은 중급자들이 주목할 부분이다. 박용승 ILEI 한국지부장은 남강학교의 향후 모습에 관해, 중급자 세미나 형태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곽종훈 남강학교 교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학교의 성격에 맞게 초급과 후초급의 수요에 따른 강습을 여전히 포함하는 형태를 말하였다. 예상되는 모습으로는, 남강학교는 2년에 한 번 혹은 년 1회를 외부 장소에서 규모 제한 없는 모습으로, 에스페란티스토들의 Kapabligo, 엘리트화, 중급자 교육에 초점을 둔 교사연수회의 성격으로 강조될 것으로 전망한다. ☺

● 106차 일본에스페란토대회

La 106a Japana Esperanto–Kongreso – 12~14 oktobro 2019, Saitama –

CHOI Sukhee (Matena)

Okaze de la 106a Japana Esperanto–Kongreso kaj la 100–jara Jubileo de Japana Esperanto–Instituto, de la 12a ĝis la 14a de okt. en Saitama, 12 koreoj flugis al Japanio, malgraŭ ke nuntempe Koreio kaj Japanio havas diplomatian konflikton, kaj ke la LKK jam informis la nuligon de la programeroj en la 12a de novembro pro terura tajfuno la 19a, kiu trapasis Japanion ĝuste en la tago. La tajfuno estis tiel kruela, eĉ kun pluvego, ventego kaj tertremo. Kaj mi devis pasigi la unuan tagon de la kongreso nur en la loĝejo, kun korbata timego. En feliĉo ni povis apenaŭ komenci la kongreson de la 3a posttagmeze en la 13a. Post la katastrofo, ni malfermis la kongreson kun la ordigita aranĝo de LKK. Rezulte nur 235 personoj povis fizike ĉeesti el 459 aliĝintoj.

Ni koreoj aktivis en la kongreso. D–ro SO Jinsu, prezidanto de KEA kaj estrarano de UEA pri Azio–Oceanio, Informado kaj Amikoj de Esperanto, prelegis kun la temo “Azia movado en la flanko kaj okuloj de UEA”, kaj kvin koreinoj kontribuis la amuzigon de Bankedo per kantoj kun la akompano de ukulelo kaj marakaso. Estis bedaŭrinde, ke ni ne povis ĝui la koncerton de famaj kantistoj pro la nuligo de programeroj en la influo de tajfuno.

En la 14a, ferma ceremonio okazis samtempe kun la solena malfermo nuligita pro tajfuno, kaj la programeroj pri 100–jariĝo de JEI estis solene plenumitaj. Ni koreoj havontaj la feston de la 100–jara Jubileo de KEA en 2020, tutkoree gratulis al JEI. Reprezentantoj de KEA, SO Jinsu, HO Song kaj LEE Namhaeng gratulsalutis, kaj donacis



Koreaj partoprenantoj en la 106a Japana Esperanto–Kongreso

verdan flagon kun subskriboj de ĉiuj koreaj parto-prenantoj kaj ĉarman pupon al Suzuki Keiichiro, prezidanto de JEI.

En la kongreso mi renkontis la amikojn, kun kiuj mi konatiĝis en alilandaj Esperanto-eventoj dum lastaj 3 jaroj post mia esperantistiĝo. Tio, kio eblas nur en Esperantujo, estis granda ĝojo kaj ĉarmo por mi.

- 요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사실 일본 방문이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평화의 언어 에스페란토를 배우는 에스페란티스토로서 민간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양국 단체의 공통된 인식에 공감하며 제106차 일본에스페란토대회 참가를 결정했다. 금년 일본대회는 일본에스페란토학회(JEI)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의미 있는 대회였다.

대회를 며칠 앞두고 준비위원회 측으로부터 일본 열도를 관통할 역대 최고의 태풍을 우려해 대회 첫날인 12일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상황에 따라 대회 자체를 전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래도 나는 마음의 동요 없이 일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10월 12일 이른 아침 출발이어서 11일 저녁부터 서둘렀다. 이남행 서울지부장과 함께 인천 공항의 캡슐호텔을 체험해 보기로 결정, 상상했던 캡슐 형태가 아닌 아주 작은 방으로 샤워실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하룻밤을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10월 12일, 잦은 자연재해로 안전에 민감한 일본인들의 대회 첫날 취소 결정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비바람이 어찌나 세차게 몰아치는지 모든 상점은 물론 중요한 교통수단인 기차도 운행을 멈추었다. 게다가 지진에 이어 여진까지... 심장이 벌렁거렸으나 평생을 이 땅에 사는 일본인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안정시켰다.

우리가 머물렀던 가와구찌 지역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으나 숙소에 머물며 인근 편의점에서 사오거나 각자 챙겨온 먹거리로 점심, 저녁을 해결하며 대회 첫날을 보냈다. 밤 11시를 고비로 태풍이 잠잠해졌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 의하면 36개의 강이 범람하고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10월 13일, 오후 3시부터 대회접수를 시작한다는 소식에 가와구찌역에서 네 정거장 떨어진 대회장(사이타마홀)으로 향했다. 외국 참가자를 포함하여 459명 접수 중 235명(현지 거주 2인 포함 한국 14명)이 참석했다. 태풍으로 대회 일정에 많은 차질이 있었지만 일본 에스페란티스토들은 차분한 진행을 보여주었고 대회장은 청결했다. 그러나 대회장에서 물을 쉽게 찾을 수 없어서 좀 불편했는데, 어디에서나 마실 물을 제공하는 한국과 비교되는 부분이였다. 간간이 들른 대회 접수처 옆에는 많은 책과 다양한 기념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내년에 '한국에스페란토협회(KEA) 창립 100주년' 행사 때 참고할만한 사진을 몇 장 찍었다.

나는 세 개의 분과 모임과 연회, 소풍에 참석했다. 서진수 KEA 회장의 "Azia movado en la flanko kaj okuloj de UEA"란 주제의 강연은 정확한 발음과 악센트가 듣기 좋았고, 정확한 통계 수치의 강연에 신뢰감이 갔다. 에스페란토 실력이 부족한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Teamanta Esperanta Organizo' 분과는 중국의 Ĝoja가 진행하며 차밭 풍경, 차와 함께하는 생활, 차 만드는 과정, 각 나라의 차 문화 등을 소개하고, Lisa는 직접 우린 차를 내주었다. 일본 야마구찌 신이씨의 불교 강연도 흥미로웠다. 불교 용어를 설명해주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나락에 빠졌다'에서 나락(narako)이 '지옥'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연회는 한국팀(이남행, 장영은, 최숙희, 김송아, 이순이)이 우쿨렐레, 마라카스 연주와 함께 선보인 '나성에 가면'과 '아리랑'으로 시작을 알렸다. 김송아, 이순이 씨가 합류하여 함께 한다는 든든함이 좋았다. Moissej Bronshtejn(러시아)의 기타연주와 노래도 러시아의 끝없이 펼쳐진 들판의 평온함에서 오는 듯한 서정성이 길게 느껴져서 좋았다. 유능한 가수들의 콘서트가 태풍으로 취소되었다는 소식에 모두 아쉬워했다.

외국 참가자들의 자기소개 시간에 한국 참가자들이 먼저 무대에 올랐다. 역시 viglaj koreoj (활기찬 한국인들!) 이어서 다른 외국인들도 무대에 올랐는데, 꽤 다양한 나라에서 참가했다: 한국, 중국, 베트남, 이스라엘, 몽골, 러시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벨라루스, 덴마크, 벨기에. 2020년, KEA 창립 100주년을 기념

하는 제52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에는 더 많은 나라에서 참가하길 바라는 욕심이 생겼다.

10월 14일, 폐회식이 태풍으로 취소되었던 개회식과 함께 열렸다. 'JEI 창립 100주년' 행사와 함께 진행되는 축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진지한 진행에 엄숙하기까지 했다. 2020년 'KEA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는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서진수 KEA 회장이 준비하고 한국 참가자들이 사인한 녹색기와 양증맞은 인형을 KEA 이름으로 허성 사무국장과 이남행 서울지부장이 일본 JEI 회장 Suzuki Keiichiro에게 전달하며 잔잔한 웃음을 주었다.

폐회식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기타가와 히사시, 미키 나카야마(NHK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와 함께 약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도쿄로 향했다. NHK의 관광코스인 시부야에서 맥주를 곁들인 간단한 음식으로 3시간에 걸쳐 짧고 굵게 도쿄를 만나고 왔다.

대회 후 관광으로 5~7세기에 만들어진 기오오다시에 있는 사키타마 고분군과 출토된 유물이 전시된 박물관을 관람하였다. 여행사 관광으로는 지나칠 수 있는 소박한 곳이었다. 점심으로 우리나라 가정식 백반 같은 일본 전통 음식을 먹었는데 돌솥 같은 솜에 지은 양념된 밥이 맛있었다. 많은 반찬이 필요 없었다. 아니 뭘 먹든지 반찬이 거의 없고 있더라도 아주 소량이다. 음식 쓰레기가 나올 리 없어 좋은 점이긴 하나 그래도 우리의 푸짐한 인심이 벌써 그리웠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한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 일본인이 '반찬이 없어서 슬퍼요'라고 했다는...

점심 식사 후 간 곳은 시골 한적한 곳에 위치한 미술관 '갤러리 마루키'였다. 미술관에 들어서니 홀서너 개의 사방이 온통 시커멓다.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의 아비규환을 검은색으로 표현한 것인데, 핵폭탄이 떨어진 곳의 온도가 무려 6,000도나 되었다고 한다. 어느 그림의 작품 설명에 '조선인은 시체에서조차 차별을 당하였다'라고 한글로 쓰여 있었다. 일본의 양심이 느껴지는 순간, 마음 한편이 누그러졌다. 미술관을 나와 17세기 에도시대의 건축물이 있는 가와고에에서 한 시간 정도 둘러보고 사

이타마 신토신으로 돌아와 그동안 함께 지냈던 동지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며 일정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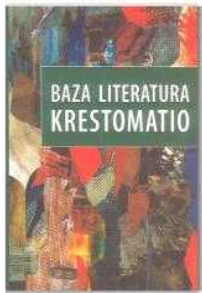
에스페란토 입문 3년 차, 그동안 국제행사에 참석하며 알게 된 외국 에스페란티스토들과 재회하는 기쁨이 에스페란토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하나의 언어로 이렇게 정겹고 유쾌하고 평화로운데 모든 지구인에게 그 날은 언제쯤일까... 한편 아직도 부족한 나의 에스페란토 실력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일상생활에 밀려 늘 뒷전이었던 에스페란토 학습, 실력 향상을 위해 학습에 열중해 보고자 마음을 굳히며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을 접었다. ☺



한국 참가자들이 사인한 녹색기와 우정의 인형을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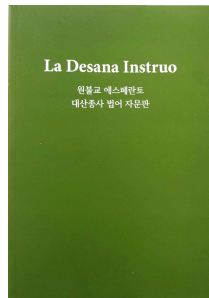
Amikoj de Zamenhof (1구좌 50만원, 2019년 11월 20일까지)		
2016년: 이영구(4.2)	박윤석(2)	박화중(2)
나영성(1)	마영대(1)	오순모(1)
조성호(1)	최대석(1)	최유식(1)
김영명(0.8)		
2017년: 이영구(4.8)	조성호(1)	손호철(1)
박화중(0.8)	김영명(0.2)	
2018년: 이영구(4.8)	박화중(2.4)	유필근(1)
조성호(1)		
2019년: 이영구(3.2)	경남지부(1)	박강문(1)
조성호(1)	이길성(0.52)	
※ 1998년부터 자료는 2019년 1/2월호 26쪽 참조		

새로 들어온 책



Baza Literatura Krestomatio (문학)

엮은이: A. Korĵenkov
출판사: Sezonoj/LEA, 2019년
365쪽, 36,000원
내 용: 대표적 E. 원작문학 작품 (시, 소설)을 연대순으로 작가 약력과 함께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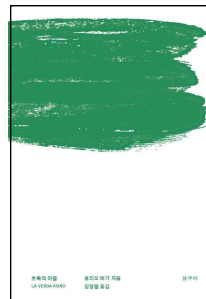
La Desana Instruo (종교)

지은이: Desano(대산종사)
옮긴이: CHOE Taesok
출판사: 원불교, 2019년
327쪽, 10,000원
내 용: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자 문관을 최대석 교수가 에스페란토로 번역



인류에게 공통의 언어가 있다면 (자멘호프)

지은이: L. L. Zamenhof
옮긴이: 최만원
출판사: 갈무리출판사, 2019년
312쪽, 18,000원
내 용: 자멘호프 박사의 주요 연설/논문/서신 번역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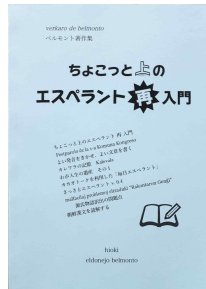
초록의 마음(Verda Koro) (소설)

지은이: Julio Baghy
옮긴이: 장정렬
출판사: 갈무리출판사, 2019년
208쪽, 12,000원
내 용: 시베리아포로수용소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E.를 배우는 이야기



Miskalkulo ĉe Jarfino (독본)

옮긴이: YAMASITA Toshihiro
출판사: Eldonejo Belmonto
108쪽, 10,000원
내 용: 일본 문학 작품의 번역 모음



Verkaro de belmonto

(벨몬토 저작집, 학습)

지은이: YAMASITA Toshihiro
출판사: Eldonejo Belmonto
102쪽, 10,000원
내 용: 문법 관련한 에세이 (일본어로 되어 있음)

찾아가는 책방

리브로세르보는 2019년 10월 5일~6일 진주 배영 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제51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 기간 중 <찾아가는 책방>을 열고, 도서판매 822,000원, 도서상품권 교환 261,000원 등 총 1,083,000원의 실적을 올렸다. 전경덕, 이용철, 박수진, 박정숙, 정다운, 최승희, 최정철 등 리브로세르보 자원봉사자들이 수고해 주었다.

저자 기증도서로 도서경매

한국대회 프로그램 Gaja Vespero에서 'Septembre, Surstrate en Tokio' (Mamiya Midori 역), '초록의 바다' (장정렬 역), '인류에게 공통의 언어가 있다면' (최만원 역) 등 세 역자가 기증한 도서로 깜짝 경매를 진행하였다. 이와 별도로 Yamasita Toshihiro (Belmonto)님이 'Miskalkulo ĉe Jarfino' 등 최근 출간한 두 권의 저서를 KEA에 기증하였다. <이용철>

Kio estas feliĉo?

– 행복이란 –

GIM Inhong (Ermito) / Psikologo

Senescepte ĉiu en la mondo serĉadas feliĉon sed plejparto de ili tamen vane. Bedaŭrinda, eĉ korŝira tragedio por la tuta homaro. Multaj, eĉ sennombraj estas libroj pri feliĉo. Inter ili estas religiaj, filozofiaj aŭ psikologiaj, kaj ili liveras tre aŭ tro diversajn, eĉ konfuze multajn materialojn por pense remaĉi kaj eventuale digesti.

Sed tamen kial homoj ankoraŭ tiom despere, soife deziras feliĉon? La respondo estas iusence tro evidenta aŭ infanece simpla. Ĉar ni ne aŭ almenaŭ ankoraŭ ne estas feliĉaj! Kial ni ne estas feliĉaj? Kial diable? En la mondo ekzistas du aferoj tre simple kompreneblaj. Nome, ioj malfacilaj aŭ maleblaj. Maleblaĵojn ni simple forgesu aŭ forĵetu. Tio donos al ni nur kapdolorojn aŭ turmentojn al nia koro. Se ĝi estas ne atingeblaĵo, por kio ni eĉ dum unu sekundo pensas pri ĝi? Simple indas dediĉi nek atendon nek atenton. Nu malgraŭ tio certe estis, estas kaj ankoraŭ, tre verŝajne estos homoj, kies hobiaj estas iluzii. Nu bonvole, laŭ via deziro!

Kial ni ne feliĉas? Iu saĝulo diris “Vi stultulo, nun vi havas vian feliĉon, sed vi simple blindas kaj tial ne vidas ĝin en via propra mano”. Ĉu vere? Aŭdinte tiun atentigon kun iom da mokemo, la “stultulo” ekzamenis sian manon kaj trovis tamen nenion. Jen tio estas kompreneble aforisma anekdoto ege sencoriĉa. Kielajn, kio okazis al tiu “stultulo”? Kial li ne rimarkas tion, kion la saĝulo tuj vidas?

Ĉu ĝi estas nur al ordinaruloj tro mistera por kompreni? Ne! ne ne ne kaj ankoraŭfoje NE! Kiel mi jam kelkfoje atentigis al vi, ni ordinaraj homoj suferas pro “nescio”. Eĉ pli domaĝa afero estas, ke homoj eĉ ne scias, ke ili ne scias, kion ili ne scias!

Nu, finfine kio estas “la” problemo? Ni homoj vidas, sentas, aŭdas laŭplaĉe. Tio signifas, ke ni spertas ĉion subjektive! Vidi, senti kaj aŭdi ekzakte tiel, kiel ĝi fakte estas, identas sperti objektive. Nu kio kun feliĉo? Ni serĉadas feliĉon, kvankam ni “fakte” ne scias, kio por si estas “vera” feliĉo. Ni homoj en nuntempo jam havas multajn, sennombrajn kialojn esti feliĉaj. Simple ni komparu kun niaj antaŭuloj. Kompare kun ili ni havas senlime pli multajn por esti feliĉaj. Kompreneble tio ne estas tuto, sed tamen povas esti “minimuma” kondiĉo por esti feliĉa. Se oni vere, tutkore deziras esti feliĉa, “minimuma” kondiĉo jam sufiĉas por esti feliĉa. Laŭ la devizo, se oni ion elkore deziras, li faros kion ajn, riskante eĉ sian kapon. Male se oni ion tutkore intencas eviti, li eĉ ne timas defii kontraŭ ĉielon por ne fari tion! Do konklude, oni ne tiom, kiom ili laŭte opinias, despere deziras feliĉon.

Eĉ pli senesperiga afero estas, ke oni havas falsan ideon pri feliĉo. Serĉi ion ne sciante kion, estas tial despli vana afero. Sed se temas pri feliĉo, oni tuj imagas pri iu ĝojiga aŭ plezuriga

momento aŭ eĉ “ekstaza” stato. Se ne tiom intensa, tamen almenaŭ iun kortuŝan aferon oni imagas. Malĝuste, tute false! Tiun ekstazan staton oni eltenas nur mallonge, se oni ne mortas pro streso kaŭzita de tiu “falsa” feliĉo. Komprenoble kelkaj iuj delirus, ke malgraŭ tiu flankefiko “mi” voluntus senti tian ekstazon. Ĝuste tiaj homoj bezonas drogojn kiel alkoholon, kokainon, haŝiŝon kaj mariĥuanon. Ĉu bedaŭrinde aŭ ne, tion mi ne scias. Sed nia nerva sistemo ne estas tiel konstruita por elteni tian “streson” longe.

Nun rekte al la celo: feliĉo egalas la foreston de sufero. Ĉu tro pasive? Sed tamen jes! Plene jes! Nun ni pensu pri feliĉo de ordinaraj homoj. Ne gravas ĉu mono, honoro, potenco. Se oni sukcesas akiri ion de ili, tiam nur momente, bedaŭrinde mallonge, oni feliĉas kaj iom poste komencas deziri pli. Oni nomas tion simple avidemo. Sed tiu fakto spertebla dum ĉiutaga vivo tamen elokventas, kio estas la vero pri feliĉo. La absoluta antaŭkondiĉo de la vero estas la neŝanĝebleco. Se io daŭre ŝanĝiĝas, tio ne povas esti la vero. La vero strikte liberas je kio, kiam kaj kie, unuvorte la eterneco! Ĉu vi elkore deziras feliĉon? Estu feliĉa nun ĉi tie! Se vi vere volas feliĉi, simple pensu, kaj vi trovos pli ol mil kialojn por esti feliĉa. Male vi ankaŭ, ĉi-foje tutaŭtomate trovos pli ol milojn da kaŭzoj por esti malfeliĉa, amara, mizera ... Feliĉon por ĉiuj! ☺

La 160a Zamenhof-Tago
- 제160회 자멘호프 탄신제 -

Kiam(때): 15:00~18:00 en la 15a de dec. 2019
 (2019년 12월 15일 15:00~18:00)

Loko(곳): Seulo-urbodomo (서울시민청)

※ ‘제2회 에스페란토 책의 날’도 함께 진행
 (9/10월호 19쪽 참조)

● **Enlande**

국내소식

2019년 10월 KEA 이사회

일시: 2019년 10월 26일 17:15~19:30

장소: 협회 사무실

참석: 서진수 회장, 김인홍 오순모 정현주 부회장,
 이용철 이남행 유영애 장영은 정희정 이현숙
 최유식 최정철 한숙희 이사, 강헌구 사무국장.

위임: 강병훈 부회장, 김주 엄미련 최정옥 이사.

[보고사항]

1. 2019년 9월재정보고

수 입		지 출	
임원회비	1,240,000	운영전도금(09월분)	2,000,000
평생회비		중식대	150,000
회원회비	170,000	건물관리비	259,420
기부금	2,585,000	재산세	399,000
CMS, 회비, 후원	77,000	통신비	38,420
도서판매	95,000	전자금융수수료	3,000
이자수입	71,110	우편료	38,000
관리비보충		편집비	200,000
부동산매매차익		소모품비	43,540
잡수수료	11,880	기관지발행	700,500
잡수입	84,640	주민세	62,350
		국장진주출장비	140,500
		CMS수수료	49,500
		MS office 이용료	121,489
		공인인증서	154,000
		대회현수막	72,000
		1601호 임차료(8월)	307,897
		1601호 임차료(9월)	935,500
당월수입	4,334,630	당월지출	5,675,116
전월이월(경상비)	4,118,707	다음달 이월	2,778,221
		<small>(경상비+회장연금+가비금+가수권)</small>	
수입누계	8,453,337	통장잔고	9,024,521

2. 9월: ① 경남지부에서 제51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를 열성적으로 준비. 허성 사무국장이 9월 중 2차례 방문하여 대회 준비 활성화를 촉진함. 대회 참가비 납부자와 기부금 후원자 명단 발표 및 참가 독려 및 기부 후원 환경 조성.
- ② 중국 자오주양대학 학생 2명과 몽골에스페란토협회 회장이 제51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 참가에 필요한 초청장을 요청해 옴. 사무국에서 초청장 등의 서류를 보냈으나, 중국 쪽만 비자를 받고, 몽골 쪽은 비자를 받지 못함.

3. 9월 8일: 한국에스페란토협회 100주년 위원회 개최, 분야별 업무 논의, 제51차 한국대회에서 이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의결. / 9월 KEA 이사회 개최, 현 임기의 마지막 이사회로서 한국대회에서 있을 임시 대의원총회 등을 논의함.
4. 9월 10일: 이용철 이사과 허성 사무국장이 서울 중구 세무서를 방문하여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여 마포사무실은 본점, 충무로 진양상가 464호는 지점으로 각각 사업자 등록증을 받음.
5. 9월 24일: '한국정보인증사'로부터 한국에스페란토협회 본점과 지점의 공인인증서를 발행받음. 인증서를 협회 사무실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함.
6. 10월 5일~6일, 제51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 개최: 경남 진주 배영초등학교, 129명(외국인 21명 포함) 참가. 대회결산 보고(조만진 준비위원)

• 후원금 : 3,000,000원

제51차 한국대회 후원금 현황 (단위: 원)			
박정길	500,000	양옥남	100,000
박화중	500,000	이낙기	100,000
이영구	500,000	임한우	100,000
정원조	500,000	전창성	100,000
서진수	160,000	익명	100,000
김우선	100,000	ILEI	100,000
백수정	100,000	김영명	40,000

• 참가비 : 7,170,000원

- 지출 : 6,027,400원
 - 잔액 : 4,142,600원
7. 임원변경등기(진행 중): 2016년도 협회 임원변경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강용원 법무사의 의견을 보고함. (강현구 사무국장)
 8. 10월 25일: 협회 사무국 업무의 인수·인계(이영구, 허성, 서진수, 강현구)가 진행됨. 기본재산으로 부동산 진양상가 464호(2억6천만원)와, 보통재산으로는 각종기금 및 경상비 통장 14권(약 1억5천만원), 국민카드 1장, 법인인감도장, 직인, 통장용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증, 출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발급카드 1장 등.
 9. 10월 11일: 기관지 발송용 봉투 제작. (1,500매)

[안건사항]

1. 신임임원의 업무분장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다.
 - 회 장: 서진수(총괄)
 - 부회장: 강병훈(조직), 오순모(총무)
김인홍(국제), 정현주(재정)
 - 이 사: 한숙희(조직), 정희정(조직), 장영은(교육)
엄미련(교육), 이남행(KKE), 이용철(출판)
이현숙(청년), 김용진(사업), 김주(국제)
유영애(홍보), 최정욱(홍보), 최정철(누리집)
최유식(100주년)



신임임원진의 첫 이사회 (10월 26일)

2. 비상임이사 임명:

곽종훈, 김송아, 김시현, 박용승, 박종영, 백수정, 오기숙, 이선희, 장기수, 조만진, 최향숙, 홍성조.

3. 임원회비(매월)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다.

- 회장: 100,000원 • 부회장: 60,000원
- 이사: 30,000원 • 비상임이사: 30,000원
- 감사: 30,000원

4. 사무국장 임명·면직: 허성 사무국장은 2019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면서 강현구 신임 사무국장에게 협회업무를 인수·인계하기로 하다. 허성 사무국장에게 10월분 운영전도금과 1개월분의 운영전도금을 전별금으로 전달하기로 하다. 강현구 사무국장(월/수/금 근무)에게 2019년 10월부터 전도금 월 50만원과 점심값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다.

5. 명예회장 추대: 이중기(21대 회장 역임), 이영구(22대, 25대, 26대 회장 역임) 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다.

6. 제51차 한국대회 수익금: 후원금은 모두 한국대회 후원금으로 합산하고, 발생한 수익금은 협회와 경남지부가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다.

7. KEA 설립 100주년 기념행사: 2020년 10월 9일(금)~11일(일) 3일간 개최하기로 하고, 장소는 영등포 소재 '하이서울 유스호스텔'로 결정하다. 개최식 장소는 '영등포아트홀'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하다.

8. 기타 안건: 제160회 Zamenhof-Tago 장소를 서울시민청 위크숍룸(지하2층)에서 2019년 12월 15일(일) 15:00~18:00에 개최하기로 하다.

KEA 임시 대의원총회

2019년 10월 5일 17:00, 제51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 행사장(진주 배영초등학교 소회의실)에서 KEA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렸다. 대의원 35명 중 참석 16명, 위임 12명으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정족수 충족되어, 김시현 임시대의원 의장의 사회로 현 임원진의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 임원 선출이 있었다. 신임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임원 임기는 3년, 감사 임기는 2년이다.

- 회 장 : 서진수
- 부회장 : 강병훈 김인홍 오순모 정현주
- 이 사 : 김용진 김 주 엄미련 유영애 이남행
이용철 이현숙 장영은 정희정 최유식
최정욱 최정철 한숙희
- 감 사 : 이길성 유필근

Rondo Amuze

2019년 5월 서울시 중구 마을사업에 '명동에서 에스페란토로 노래하자'라는 이름으로 선정, 11월 20일 18:00 서울에스페란토문화원 근처에서 '아름다운 명동에서 사랑을, 사람을, 세상을 노래하자'란 주제로 거리공연(13명)을 하며 에스페란토를 알렸다. 서울지부와 청년회에 서도 참여해 많은 응원을 해주었다. <전경우>



Rondo Amuze의 거리공연 (명동)

Korea Esperanto-movado en oktobro/novembro, 2019

원불교에스페란토회 에스페란토 강습

원불교에스페란토회(교령 김상익, 회장 홍성조)에서 세계 교화의 일환으로 국제어 에스페란토 강습을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기간: 11월 19일 ~ 12월 31일

날짜: 매주 화요일 13:00~15:00 (8회)

장소: 원불교 중구교당 1층 카페 (충무로, 대한극장 뒤)

강사: 이중기 교도 (에스페란토 문화원 원장)

수강료: 월 20,000원 (교재 포함)

순천 에스페란토 강좌

개강: 2019년 11월 12일 (초급 2개월 과정)

시간: 매주 화요일 17:30~19:00

장소: 행금길 28-8, 말씀과 밥의 집 (문화의 거리)

강사: 안정희 (Mira AN)

수강료(2달): 20,000원 (교재 포함)

서울지부

- 11월 13일: 우크라이나에스페란토협회 Eüheno Kovtonjuk 회장이 서울지부를 방문하였다.
- 12월 17~21일, 서울지부와 상하이지부 개최로 'La 1a Esperanto-Forumo de Seulo kaj Shanghai'(제1차 서울·상하이 에스페란토포럼)을 상하이에서 갖기로 했다. (11쪽 참조) <오순모 / 서울지부>

보도자료

- 용인신문 (2019년 11월 10일자): "에스페란토는 언어를 통한 세계평화운동"이란 제목으로 한국에스페란토협회 회장 서진수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소개되었다. <김종경 기자>

세계 에스페란토 차(茶)사랑 협회 한국지부 출범

'Teamanta Esperantista Organizo'(TEO)의 한국지부가 2019년 10월 6일, 제 51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 행사장에서 창립모임을 갖고 출범했다. 17명(한국 14, 중국 3)이 참석했으며, TEO 한국지부장으로 이남행 서울지부장이 선출되었다. ⇨

<이중기 / TEO 임원>



신입회원

- 서영원 (평생회원, 미국) : 진경덕 추천
- 강희선 (일반회원, 전주) : 이현미 추천
- 양현준 (학생회원, 진주) : 류진숙 추천

국외 소식

자멘호프 박사의 직계 손자 영면하시다



(1925~2019)

자멘호프 박사의 장남 Adamo 님의 유일한 아들인 Louis-Christophe Zaleski-Zamenhof 선생께서 2019년 10월 9일 프랑스에서 돌아가셨다. 자멘호프가의 혈족으로 Zaleski-Zamenhof의 따님인 Margaret Zaleski-Zamenhof(의사) 여사가 세계에스페란토대회에 참석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초의 에스페란토 오페라 공연

2019년 9월 27일, 체코의 천재적 작가 라디슬라프 클리마의 소설 '스테르넨호흐 공작의 고뇌'가 오페라 작품으로 체코의 프라하국립극장에서 처음으로 에스페란토로 공연되었다. ⇨ <https://youtu.be/pElieVjoPY4>
<https://www.youtube.com/watch?v=Hziv3vOx9a0>

크로아티아 '에스페란토 자료센터'

2019년 9월 22일, Josip Pleadin에 의해 크로아티아 Djurdjevac에 '에스페란토 자료센터'(Dokumenta Centro de Esperanto)가 개원되었다. 이 자료원에는 많은 에스페란토 자료들이 전시 보관될 계획이다.

제 7차 아프리카 에스페란토 대회

기간: 2019년 12월 21일~27일
장소: 부룬디 부줌부르
주제: Verdigo de la kontinento afrika
문의: afrikakongreso7@gmail.com

일본 '월년 연수회 (Transjara Kurskunveno)'

기간: 2019년 12월 30일 ~ 2020년 1월 2일
장소: 일본 가메오카 오오모토 본부

참가비: 12,000 엔, 수강료, 숙박(2019.12.30.~2020. 1.2, 다실), 식사(12월 30일 아침 ~ 1월 2일 점심) 포함. 기간 외 경우 조식 250 엔, 중·석식 각 400 엔, 1박 850 엔은 별도 부담.

신청 대상: 에스페란토 초급 과정 이상 학습자.

문의 사항: 서울에스페란토문화원

- 신청자는 일본 간사이공항 도착시간을 12월 29일 오후 5시 전후로 예약하면, 6시에 간사이공항에서 행사장으로 출발하는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1월 3일에도 숙박을 원할 경우 1월 3일 오전에 열리는 오모모토 월례행사에 참석해야 하고, 1월 4일 아침에는 오모모토를 떠나야 한다.

뉴질랜드·호주 합동 에스페란토 대회

기간: 2020년 1월 10일~19일

장소: 뉴질랜드 오크랜드

참조: <http://aea.esperanto.org.au/kongreso/?lang=eo>

Speciala Ekskurso (네팔)

기간: 2020년 2월 26일~3월 8일

(Himalaja Renkontiĝo와 유사)

- 2월 26일: Katmanduo 도착
- 2월 27일: Baŭdhnath → Pasupathinath
- 2월 28일: Patano
- 2월 29일: Amaltari (Ĉitaŭan Nacia parko, 1박)
- 3월 1일: 새 관찰, Kanota 걷기, 코끼리타기, 정글
- 3월 2일: Lumbini (1박)
- 3월 3일: Palpa (새벽 6시 출발, 1박)
- 3월 4일: Pokhara (1박)
- 3월 5일: Sarangkot → Pokhara에서 관광
- 3월 6일: Bandipur Korikha (1박)
- 3월 7일: Mankamana(케이블카) → Katmanduo
- 3월 8일: 자유여행, Adiaŭa Vespero

참가비: 950유로 (관광, 숙박, 입장료, 교통비 포함)

※ 1인실은 200유로 추가

문의: nesp.1990@gmail.com

1a Mez-Azia Kunveno

기간: 2020년 5월 1일~5일

장소: 타지키스탄 두산베

제105차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



날짜: 2020년 8월 1일(토) ~ 8일(토)
 장소: 캐나다 몬트리올
 신청: https://uea.org/alighoj/uk_alighilo

개별 참가신청 수속이나 송금이 어려운 분은 아래의 참가신청서를 쓰고 참가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KEA로 송금하기 바란다. 단, 1유로는 1,400원으로 하여 송금수수료에 대비하고자 하며, 환율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은 KEA 재정으로 귀속된다.

* 송금계좌: 국민은행/ 031-01-0365-220 / 한예협

[참가신청]

1차 신청	2019년 12월 31일까지
2차 신청	2020년 3월 31일까지
3차 신청	2020년 4월 1일부터
※ 2차 신청부터 환율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신청자는 각자 한 장의 신청서를 써야 하며, 필요하면 복사해서 쓸 수 있다. (철자는 정확하게)

성명: 한글과 로마자(여권대로) 병기
 성별: 남자 () / 여자 ()
 주소: 한글과 로마자(로마자 표기를 잘 모르면 비워둘 것)
 전화: 휴대전화번호 병기 UEA-회원코드:
 생년월일: 전자우편:
 날짜: 서명:
 참가비: 해당 항목에 동그라미로 표시

신청이 완료되면 참가신청 확인서와 대회안내서(Dua Bulteno)를 받는다. 그리고 이 대회안내서에서 숙박, 관광, 만찬을 비롯한 각종 유료 주문사항들을 알 수 있다.

[참가자 구분 · 기간별 참가비] (1유로: 1400원)

- UEA 개인회원: 1차 - 190유로 (266,000원)
 2차 - 240유로 (336,000원)
 3차 - 290유로 (406,000원)
- UEA 비회원: 1차 - 240유로 (336,000원)
 2차 - 300유로 (420,000원)
 3차 - 360유로 (504,000원)
- UEA 개인회원이며, UEA 위원, 배우자·동반자, 청년, 장애인: 1차 - 95유로 (133,000원)
 2차 - 120유로 (168,000원)
 3차 - 145유로 (203,000원)
- UEA 비회원이며, 배우자·동반자, 청년, 장애인: 1차 - 145유로 (203,000원)
 2차 - 180유로 (252,000원)
 3차 - 215유로 (301,000원)

- ◆ UEA 위원: 참가신청 시 UEA 위원, UEA 참관인.
- ◆ 배우자·동반자: 'UEA 개인회원' 또는 'UEA 비회원' 참가자와 같은 주소의 거주자.
- ◆ 청년: 1990.1.1~1999.12.31(당일 포함) 출생자. 생년월일 기재, 생일이 기재된 신분증 복사본 발송.
- ◆ 장애인: 동반조력자가 필요한 장애인(예, 시각장애인)으로서, 의사 진단서나 유사한 증명서가 필요함.
- ◆ 무료참가자: 1999.12.31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동반조력자.
- ◆ 유의 사항
 -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으며,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참가비는 숙박/식사/관광/만찬을 포함하지 않는다.
 - 신청기준 일자는 신청서/참가비가 도착한 날부터.
- ◆ 문의: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 (KEA)

(02-717-6974 / kea@esperanto.or.kr)

<KEA 사무국>

제109회 에스페란토 실력 검정 시험 (중급) - 제51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 (10월 6일) -

출제: 허성 / KEA 어학위원

문제 및 모범답안

※ 다음에 주어진 문장 중 에스페란토는 한국어로, 한국어는 에스페란토로 바꾸시오. (1~8)

1. En la daŭro de kelke da minutoj mi aŭdis pafojn. La pafado daŭris tre longe. Mi eksaltis de surprizo.
➔ 몇 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는 여러 발의 총성을 들었다. 사격은 오래 계속되었고, 나는 놀라서 필쩍 뛰었다.
 2. Skatolo, en kiu oni tenas plumojn, estas plumujo, kaj bastoneto, sur kiu oni tenas plumon por skribado, estas plumingo.
➔ 펜을 넣어두는 상자는 plumujo(펜 상자)라고 하고, 필기를 위하여 펜을 지탱하는 작은 막대는 펜대라고 한다.
 3. Vortoj kunmetitaj estas kreataj per simpla kunligado de vortoj; oni prenas ordinaro la purajn radikojn, sed, se la bonsoneco aŭ la klareco postulas, oni povas ankaŭ preni la tutan vorton, t.e. la radikon kune kun ĝia gramatika finiĝo.
➔ 합성어는 단어들의 단순한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대개는 어근의 결합을 택한다. 하지만, 좋은 발음이나 명확성을 위한 필요에 따라서는 단어 전체를 취할 수도 있는데, 이는 어근과 문법어미를 같이 취할 수도 있다.
 4. La virin-futbala monda pokalo, tiu sporto ne estas tre laŭmoda en Usono.
➔ 세계 여자 월드컵 축구대회는, 미국에서는 그다지 유행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5. 세계에스페란토대회에 참가하려면, 언어능력과, 여행비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 Se oni volas partopreni en la Universala Kongreso de Esperanto, oni devas havi lingvo-kapablon, vojaĝkoston, kaj liberan tempon.
 6. 2022년 한국 부산에서 제10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에스페란토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 La 10a Azia-Oceania Kongreso de Esperanto okazos en Busan(o), Koreio en 2022(-a jaro).
 7. 한반도에서 가장 긴 강은 낙동강이 맞나?
➔ Ĉu estas korekte(ĝuste), ke la nakdonggang-rivero estas la plej longa rivero en korea duoninsulo?
 8. 한국말의 새끼 고양이는 헝가리 말로 cica라고 한다. 러시아 말로는 무엇이라고 할까?
➔ Goyang-i en la korea (lingvo) estas nomata cica en la hungara. Do kio oni nomas ĝin en la rusa?
- ※ 외국 에스페란티스토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문장을 단문, 중문, 복문이 두루 나오도록 6개 이상을 지으시오. (9~10, 모범답안 생략)

제109회 실력검정시험(중급) 합격자

강보연(광주전남지부), 조대환(부산지부)

1. 한국에스페란토협회 안내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는 에스페란토를 통한 국제 민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에스페란토를 보급하며, 나아가 한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20년 김억 등에 의해 설립된 조선 에스페란토 협회의 전통을 계승하며, 1976년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의 한국 지부가 되었고, 1986년 12월 사단법인화가 되었다. 주요 활동으로 기관지 “에스페란토”발간, 강습회 개최, 기타 국내외 각종 행사 개최와 참여 등이 있다.

2. 입회 방법

에스페란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회할 수 있다. 연회비를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입회 신청서를 협회 사무국으로 보내면 회원으로 등록되고, 협회 기관지를 받게 되며 각종 행사에 할인 혜택을 받는다.

회비 :

일반회원 50,000원 가족회원 25,000원
학생회원(초등학생 이상, 대학원생 제외) 20,000원
평생회원 1,000,000원 후원회비 성의껏

회비 납입 계좌 : 국민은행 031-01-0365-220 [예금주: 한국에스페란토협회]

한국에스페란토협회 전국 지부 연락처

경남지부 - 지부장 : 류진숙

부지부장 : 조만진 총무 : 강병훈
52671 진주시 신안로 126번길 18 넝쿨채 102호
010-2663-0703 / jscos@hanmail.net (류진숙)
정기모임 : 매주 화요일 7시

경북지부 - 지부장 : 김성현 총무 : 이상호

37774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6(죽도동) ESPERO내과
054-282-0708, 전송검용054-274-2403
[이상호] marktri@hanmail.net 또는 belaaastro@nate.com
정기모임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7시

광주전남지부 - 지부장 : 백수정 총무 : 김송아

61126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81, 204동 501호
kristalo1005@daum.net
정기모임 :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7시
지부카페 : <http://esperanto.or.kr/club/GJfilio>

대구지부 - 지부장 : 김원식

부지부장 : 김진호, 박미홍, 한수민 총무 : 박정섭
42430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5길 42-2 내외빌딩4층
053-475-1887 / 010-3829-1675(지부장)
taeguesperanto@hanmail.net
정기모임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7시 지부 사무실
지부카페 : <http://esperanto.or.kr/club/TaeguFilio>

대전충남지부 - 지부장 : 정명관

부지부장 : 김종광 총무 : 박남미
3521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70, 105동 306호(월평동, 누리아파트)
mkjng1@nate.com
학습모임 : 매주 화요일 18시

부산지부 - 지부장 : 김일철

부지부장 : 박덕용 총무 : 유미경
4623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219번길 48, 101-1902(구서동 신동아아파트)
granda81@hanmail.net
웹사이트 : <http://teranido.blogspot.kr>

서울지부 - 지부장 : 이남행 총무 : 오순모

01181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53길 35 103동 401호 미아동 반석타운
kanguruo999@gmail.com
지부카페 : <http://cafe.daum.net/Esperanto>
정기모임 :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7시

인천지부 - 지부장 : 조명자 총무 : 임동혁

14619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107, 126-1101(중동, 팰리스카운티 아파트)
ds2edr@daum.net
지부카페 : <http://cafe.daum.net/VerdajSteletoj>

전북지부 - 지부장 : 이선희

부지부장 : 정소영 총무 : 이미경
55048 전북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9길 33, 3동605호(중화산동2가)
sunny3305@hanmail.net

강원지부 - 지부장 : 최영숙 총무 : 한순희

24331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170-2
najting@hanmail.net

수원지회 - 지회장 : 김영호

부지회장 : 박영찬 총무 : 임성택
18101 경기 오산시 양산로398번길 8-11 (양산동)
esperanto@lge.com, sukmi60@hanmail.net
정기모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지회카페 : <http://cafe.naver.com/suwonaesperanto>

안양지회 - 지회장 : 김철민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220 유진빌라 가동 101호
popolo@saluton.net

익산지회 - 지회장 : 고영희 총무 : 최윤이

54593 전북 익산시 중앙로5길 9 (중앙동3가)
역전보화당한의원 내 에스페란토의집
dau0707@hanmail.net
지회카페 : <http://cafe.daum.net/zinio81>

천안지회 - 지회장 : 박종영

31188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933, 119동-102호
studema@paran.com

합천지회 - 지회장 : 이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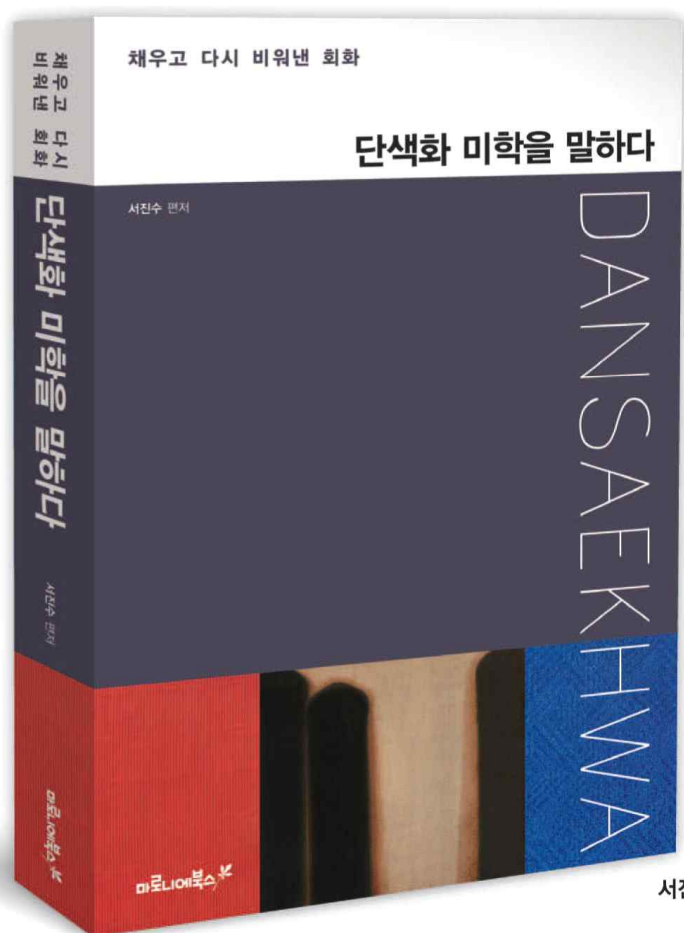
50247 경남 합천군 적중면 황정1길 37 원경고등학교
cosmoslmk@hanmail.net

한국에스페란토청년회 - 회장 : 신현규

부회장 : 오희연, 박상현 총무 : 박장호
010-8289-5788, 010-4858-9079, 010-9192-2671
블로그 : <http://kejesperanto.blogspot.kr>

D
A
N
S
A
E
K
H
W
A

채우고 다시 비워낸 회화 단색화 미학을 말하다



서진수 편저 | 376쪽 | 20,000원

한국 고유 미술로서의 해석과 재해석
세계화 전략과 비판을 통해서 본 한국 단색화의 이해

색으로 충만한 한국의 그림, 단색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적 사조로 재조명!